

호국보훈의 달, 6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호국(護國)’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할

‘보훈(報勳)’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 필리핀군참전기념비, 고양시 6·25참전기념비, 독립운동기념탑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 등 현재의 평화가 있기까지 몸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숭고한 역사의 달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와중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잊혀진 안 될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고양시 대표 현충시설에 방문해 그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임중빈(고양시 소설기자)



護國報勳



필리핀군의 6·25전쟁 참전과 의의를 되새기는 ‘필리핀군참전기념비’

나란히 펄럭이는 유엔·대한민국·필리핀의 국기가 선명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는 나라에서 지정한 현충시설(국가수호 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6·25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었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7월 까지 무려 3년간을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와 이산가족, 기반시설 파괴 및 민간인 희생 등이 발생했다.

필리핀군참전기념비는 6·25전쟁 발발 후, 1950년 9월 19일 우리나라에 대대급 병력을 파견하여 활약하다 산화해간 ‘필리핀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위로하고, 후대에 그 뜻을 전하기 위해 1974년 10월 2일 세워졌다. 당시 필리핀 역시 독립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하였음에도 전차 18대와 1개 보병대대급의 병력을 파견하여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했다. 미국, 영국에 이은 3번째 연합군 참전국으로, 전사 112명, 부상 299명 등 가슴 아픈 희생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울동전투, 아스날-애리고지전투, 백석산-크리스마스고지전투 등이 있다. 울동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4월 22일에 건립한 연천의 ‘필리핀참전비’와 함께 필리핀군의 6·25전쟁 참전과 그 의의를 되새기는 데 충분한 곳이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의 전장에서 분투한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54-8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고양시 6·25 참전 기념비’

매년 6월 25일에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03년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고양시 6·25 참전 기념비’는 본래 2001년 7월에 통일로 휴게소 공원 내에 건립되었으나, 상시 주차차량과 통일로 도로변이라는 위치적 한계 때문에 기념행사 및 관리에 제약이 많아 현 위치(필리핀군참전기념비 옆)로 2011년 1월에 이전되었다.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고양시 출신 무명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빛나는 전공을 영구히 기리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54-8

고양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곳, ‘고양독립운동기념탑’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일산문화공원 내에 건립한 ‘고양시독립운동기념탑’ 역시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고양 출신 74인의 독립운동가와 아직 조명되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곳으로, 위대한 호국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천여 평에 달하는 부지 내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양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엿볼 수 있으며, 분수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일산문화공원 내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그 날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형 석부조물을 보면 가슴이 절로 숙연해진다.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4